



“웜비어 죽게한 김정은, ICC에 제소를”

이번 웜비어 사태로 미국 뉴욕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건물 앞에서 북한 김정은의 만행을 규탄하는 ‘인 시위’를 하고 있는 인권활동가 마영애 미주탈북자선교회 및 국제탈북민인권협회 미주대표의 모습. ▶관련기사4면 LPN 제공

“하나님 나라 ‘의’ 위한 비즈니스 실현해 내야”

‘낮은 곳 향하는 비즈니스’ 주제로 ‘제11회 IBA 서울 컨퍼런스’ 열려

“낮은 곳을 향하는 비즈니스”란 주제로 ‘제11회 IBA(International Business Alliance) 서울 컨퍼런스’가 24~25일 양 일간 장충교회에서 개최된 가운데, 참석자들은 리더들과 함께 이번 대회를 통해 일상 속 낮은 곳으로 들어가 곳곳에 스며들어 다양한 재능으로 섬기는 Business As Missioner의 삶을 살기로 다짐했다.

◆BAM? IBA?

컨퍼런스 특강 강사로 나선 조 샘 선교사(美Center for BAM 공동대표, IBA 공동대표)는 “1990년대 중반 중앙아시아에서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되었던 BAM은 2004년 로잔이 주최했던 BAM운동 1차 컨설팅레이션을 기점으로 전 세계로 확장된 운동으로 나아왔다”고 밝히고, “삶과 선교를 연결하려는 다양한 노력들은 그 신학적 출발점과 선교적 상황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일상이 선교적 삶과 통합되는 총체적 선교의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조 샘 선교사는 “한국 선교계에서 일상과 선교적 삶의 통합, 특히 비즈니스와 선교를 통합하려는 노력의 출발을 추적할 때 빠질 수 없는 인물은 방선기 목사와 신갈렙 선교사”라 밝히고, “이들은 아일랜드라고 하는 비즈니스의 상황을 배경으로, 각각 직장 사역과 비즈니스 미션을 개척했던 인물”이라 평가했다. 그러나

조 선교사는 “BAM의 글로벌한 흐름과 연결되어 한국교회와 선교계 내에서 운동성을 확대하게 된 것은 International BAM Alliance(IBA)라 할 수 있다”고 말하고, “IBA는 2007년 중국 상하이 상하이안인연합교회에서 시작됐으며, 2017년 현재 약 60여개의 지역교회와 선교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운동으로 확장됐다”고 설명했다.

송동호 사무총장(IBA)은 어젠다 세팅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고 있는 시대는 비즈니스가 라이프 스타일이요 문화가 된 시대”라 말하고, “이 가운데 창조령과 문화명령을 수행하는 우리는 일꾼으로서 또한 일터 속에 사는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한 비즈니스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BAM은 삶, 일터, 비즈니스를 분리시키지 않는다”고 말하고, “주님은 우리를 보낼 때 다양성과 연합으로, 성육신의 삶으로, 친밀함 가운데 미션을 수행하라 하신다”고 했다.

송 사무총장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이끄는 의의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기업 활동이 탐욕의 상징이 되어 세상을 힘들게 만드네 반하여 우리는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세상의 장벽을 넘어야 할 것”이라며 “특히 BAM은 영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변화 즉 종체적 변화를 이뤄야 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이를 위해 지속 가능하고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낮은 곳으로 임하

는 비즈니스를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필요를 가진人们 속에 함께 일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낮은 곳을 향하는 비즈니스”라 이야기 했다.

◆제11회 IBA 서울 컨퍼런스에서는…

이번 행사 주제강연은 인도 캘커타 흥등가에 있는 여성들의 자립과 회복을 돋기는 기업 ‘Freeset’의 설립자이며 대표인 캐리 헬튼과 애니 헬튼 부부가 함께 전했다. 특히 애니 헬튼 대표는 자신들의 사례를 전하며 “우리는 이 지역사회 전체가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밝히고,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와 성착취가 사라지고 그녀들은 물론이고 그 자녀们 또한 안전한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는 것을 보기 원한다”며 지난 학창 시절에 “BAM은 삶, 일터, 비즈니스를 분리시키지 않는다”고 말하고, “주님은 우리를 보낼 때 다양성과 연합으로, 성육신의 삶으로, 친밀함 가운데 미션을 수행하라 하신다”고 했다.

또 사례발표 시간에는 다양한 BAM 기업들의 실사례들이 발표됐으며, 특강 시간에는 초보자들을 위한 BAM 이해 돋기(서명구)부터 시작해 4차 산업혁명과 BAM(정원혁). BAM 기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네비케이션(조선), 세계선교의 동향과 BAM운동(송동호)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도 있었다. 또 BAM의 다양한 측면들을 이해하고 BAM을 융합적이며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얻을 수 있었던 12개의 ‘BAM프리즘’ 강연 시간과

G&M글로벌문화재단과 함께 하는 ‘토크 콘서트’, 단체 익스포와 BAM기업들 간의 네트워크 모임, 저녁집회 등도 역시 특별한 시간이었다.

◆IBA 컨퍼런스 마무리하며 ‘선언문’ 도 발표

2일 동안의 행사가 마무리 되며 참석자들은 리더들과 함께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먼저 참석자들은 선언문을 통하여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 복음 증거는 하향적 삶을 지향 한다”고 밝히고, “상향적 자본주의의 문화 가운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복음의 중요한 표현”이라며 “우리는 약자들과의 결손한 동행, 아픔에 대한 공감, 회복을 위한 희생을 통해 주님을 보게 되며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증거 한다”고 했다.

이어 “BAM 운동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실현하는 종체적 선교의 방향”이라 선언하고, “이 시대의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종체적 통치를 증거 하는 다양한 표현을 요구 한다”며 “BAM 운동은 최대 세상 속에서 영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여러 선교 방법들과 함께 할 것”이라 다짐했다.

셋째로 참석자들은 “우리의 선교는 지역사회 변화으로부터 출발 한다”고 밝히고, “우리는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결핍과 불의와 고통을 인식하고,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임하도록 노력 한다”고 했다. 또 “BAM 운동은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성을 요구 한다”고 밝히고, “비즈니스 문화 속의 선교적 삶은 공동체성을 갖는다”면서 “우리는 변혁적 삶을 지향하는 다양한 공동체들의 등장을 환영하며 주목 한다”고 이야기 했다.

충은혜 기자

트럼프 취임 후 위축된 美 동성애 운동

트럼프 6월을 LGBTQ 긍지의 달로 언급하지 않아

지난 8년동안 미국에서 매년 6월은 LGBTQ 긍지의 달로 지켜져왔다.

LGBTQ는 Lesbian(여성 동성애자), Gay(남성 동성애자), Bisexual(양성애자), Transgender(성전환자), Queer (퀴어, 이성애적이지 않은 모든 성적 소수자)를 의미한다.

LGBTQ 긍지의 달은 미국 동성애 운동의 시작으로 알려진 1969년 6월 뉴욕 스톤월 시위를 기념하기 위해 민주당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처음 6월을 LGBTQ 긍지의 달이라고 선포하며 지켜졌다. 하지만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는 지키지 않다가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2011년부터 다시 매년 지켜져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6월이 되면 LGBTQ를 백악관에 초대하는 등 성대하게 LGBTQ 긍지의 달을 지켜왔는데 임기 마지막해인 지난해 6월에는 뉴욕 스톤월 시위가 시작된 스톤월 여관을 국립기념지으로 지정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번 6월은 정부가 지정하는 LGBTQ 긍지의 달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6월은 카리브 출신 미국인 유산의 달, 흑인음악 기념의 달, 전국 해양의 달, 집주인협회의 달, 외부에서 즐기는 달로 지키라고 선포했지만 LGBTQ 긍지의 달은 언급하지 않았다.

동성애 권리단체들은 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반 LGBTQ라는 대표적인 예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11일 워싱턴 DC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LGBTQ들은 자기들만의 LGBTQ 긍지의 달 파레이드를 가졌다. 이들은 LGBTQ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이 걸려 있는 식당, 호텔 등을 지나가며 ‘Resist’(저항하다)라고 외쳤다. 트럼프 행정부가 LGBTQ의 권익을 무시한다는 지향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후 반LGBTQ 입장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백악관 홈페이지에 소개됐던 동성애자의 권리 관련 내용이 모두 삭제됐다. 당시 언론들은 “트럼프가 취임한 지 한 시간 만에 LGBT의 권리에 대한 글이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삭제됐다”고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엔 ‘오바마 대통령과 LGBT 커뮤니티’라는 항목 아래 동성애를 지지하는 글이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부터는 LGBT로 검색하면 관련 글이 나오지 않는다.

지난 2월 법무부와 교육부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 공립학교에서 성전환자들

이 자신들이 선택한 성(性)에 따라 화장실, 탈의실을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한 지침을 철회했다.

지난 4월 법무부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 노스캐롤라이나의 이른바 ‘화장실법’을 반대하며 당시 법무부가 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

노스캐롤라이나 ‘화장실법’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성에 따라 화장실을 쓰도록 규정한 법으로 당시 성전환자들을 차별한 것이라며 LGBTQ 단체와 기업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오바마 행정부 역시 차별이라며 법무부는 법원에 ‘화장실법’ 폐기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널 고서처 연방대법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 ‘동성결혼 절대 반대’ 입장의 사람들을 연방대법관, 부통령으로 임명한 것도 그가 반 LGBTQ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거나 그것이 LGBTQ 단체들의 시각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 LGBTQ 입장 가운데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기독교인 사업가 편을 드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켄터키 항소법원은 기독교인인 프린팅 가게 주인이 게이 긍지의 달 행사에 쓸 T셔츠 제작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2012년 켄터키 렉싱턴에 소재한 프린팅 가게 주인은 게이 단체로부터 게이 긍지의 달 행사에 사용할 T 셔츠 제작을 주문받았다. 하지만 T 셔츠에 새겨야 할 이름과 로고 등 메시지를 자신의 기독교 신앙에 배치된다며 거부했다.

케이 단체는 차별이라며 소송을 걸었고 프린팅 가게 주인은 그동안 욕설이나 예수가 해적 옷을 입는 등 자신의 신앙에 배치되는 내용은 프린팅하지 않는다는 것 이 사업정책이라며 반박했다. 법원은 가게 주인이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강제로 프린팅하게 하는 것은 연설의 자유 침해이며 가게 주인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2015년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 된 후 재판점, 꽃집, 결혼사진회사 등은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동성커플들이 자신들의 결혼식에 필요한 케이, 꽃, 사진 주문을 거부했다가 법원에서 패했다.

하지만 이번에 켄터키 항소법원 사례를 계기로 미국에서 기독교인 사업가들은 연설의 자유를 근거로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대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려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글=케이아메리칸포스트

韓·美 정상회담 전 워싱턴에서 ‘한미연합 오찬기도회’ 열려

한미 양국 대통령의 첫 정상 회담을 앞두고, 양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먼저 한반도 평화와 한미 우호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했다.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훈트 호텔에서 열린 이번 오찬기도회에는 황준석(북미주전선협회 회장), 황의준(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샘 로러(Sam Rohrer, American Pastor's Network 총재),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등 한국과 미국의 교계 지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특별히 이번 행사는 6.25전쟁 67주년을 맞아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도움을 준 미국에 감사의 표시를 전하고,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는 의의가 있었다. 이날 설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전도한 폴라 화이트(Paula White) 목사가 맡아 전했고, 미국 국가조찬기도회 상원의원 회장인 존 보즈먼(John Boozman) 연방상원의원과 미국 국가조찬기도회 하원의원 회장인 로버트 아델호트(Robert Adelholt) 연방하원의원의 인사말도 있었다.

한미동맹의 미의회 통과 10주년 기념으로 열리는 대회에 김일석 박사(前 유엔군문제자문위원), 강필원 박사(한미 자유연맹 총재) 등이 주제 발표를 했고, 애델 로이스 의원(미하원외교위원회 위원장)과 존 맥케인 의원(미상원군사위원회 위원장) 등이 패널리스트로 참가했으며, 이영훈 목사가 인사말을 전했다.

홍은혜 기자

손인식 목사 “여러분의 기도에서 절규가 떠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북한 동포들 자유인권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복중앙교회(담임목사 길성운)가 23일 오후 그날까지선교연합 대표 손인식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통곡기도회를 진행했다.

이날 설교에서 손인식 목사는 “한국교회에 기도는 있으나 절규가 없어진 것을 느낄 때가 많다. 예배는 있으나 어느새 눈물이 사라진 한국교회 예배들을 볼 때가 많다”며 “절규가 있는 기도가 있을 때 절규가 최후의 승부를 확 열게 된다”고 강조했다.

손 목사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에서 절규가 떠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마지막 절규해본 적이 언제입니까?”라고 물으며 “절규가 있을 때 하나님 들으시고 개입하기 시작하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목사는 이어 미 상원에서 북한인권 법이 통과되었던 일 앞서도 ‘절규의 기도’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10여 년 전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350만 이상이 굶어 죽는 죽음의 행렬을 보면서 이럴 수는 없다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절규하고 부르짖자고 조청을 했다”며 “그랬더니 미 전역에서 캐나다에서까지 1,600명에 이르는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와주셨고,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절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 민족이 어찌할꼬. 70년이 넘게 꼬리 없는 짐승처럼 노예 중의 노예가 되어있는 우리 동족들을 우리가 어찌할꼬”라며 “다들 부르짖고 절규했다. 눈물이었다. 장이 끊어지도록, 가슴을 치고 절규했다”면서 “거기에 미국의 100명의 상원의원 중 한 분 독실한 크리스천이신 샘 브라운백을 연사 중의 한 분으로 모셨는데 이분이 저희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절규를 들으셨다”고 말했다.

이어 “그다음 날 그분이 미 상원의원 100명에게 전화하고, 이메일 보내고, 보좌

관을 보내고 자기가 찾아다니며 ‘1,600명이나 되는 한인교회 목사들이 기도하고 있더라. 왜 북한인권법을 빨리 통과시키지 못하고 불잡고 있겠나?’며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자고 했다”며 “그날 점심시간 시작하기 전에 100명의 상원의원의 마음에 하나님께 다 개입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다 움직이셔서 100명이 만장일치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고 손인식 목사는 강조했다.

이날 성도들은 북한의 우상 독재와 인권 탄압이 끝나기를,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폴려나고 정치범 수용소가 해체되기를, 전쟁이 없는 평화 통일을 주시기를 기도했다.

또 한국교회가 잠에서 깨어서 통일의 주역이 되기를, 세계 모든 나라를 일어나 한반도 통일을 둑게 하시기를,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통일을 누리기를 기도했다.

이날 기도회 중에는 ‘이제 만나러 갑니다’ 출연자인 탈북민 김현정 자매와 북한 동포직접돕기운동 이민복 대표의 탈북 간증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또 그날까지선교연합의 통일선교사를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통일선교사는 일주일에 한 끼를 급식하며 통일과 북한

동포, 탈북자,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매월 통일 한국을 위해 모이고 부르짖는 연합 기도회나 모임에 1회 이상 참여해야 한다.

또 자신 외에 한 명 이상이 통일선교사 10만 명의 일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며 매월 1만 원 이상을 통일한국 사역을 위해헌금한다.

성복중앙교회와 함께 이날 행사 주최한 그날까지선교연합은 성도들에게 통일선교사 한신 서약서와 북한을 위한 매일 기도 제목 6월호를 제공했다.

성복중앙교회는 통일비전스쿨의 첫 시간을 이날 통곡기도회로 진행했다. 오는 30일 금요기도회에는 통일한국을 꿈꾸는 사람들의 모임인 마중물 대표 이루열 목사(예수마음교회 담임)를 초청했다.

그날까지선교연합은 한국에서는 지난 5월 21일 서울 원천교회(담임목사 문강원)을 시작으로 9월까지 전국에서 2017년도 제2기 통곡기도회를 진행한다.

한편 그날까지선교연합의 뿌리인 ‘북한의 자유를 위한 미주한인교회연합(KCC)’는 다음 달 11~13일까지 워싱턴에서 한인 2세 학생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북한 인권 행사를 연다.

오상아 기자

“목회자들의 영적 회복이 있는 귀한 시간”

다니엘기도회&꿈이있는미래 서울·경기 컨퍼런스 열려

‘다니엘기도회 & 꿈이있는미래 컨퍼런스 전국투어’(이하 컨퍼런스) 10차 행사가 지난 22일 서울 오륜교회(담임 김은호 목사)에서 550여 명의 목회자들이 함께하여 온해 가운데 마무리 되었다.

이날 컨퍼런스는 김은호 목사(다니엘기도회 운영위원장, 꿈이있는미래 대표, 오륜교회 담임)의 강의로 시작되었다. ‘건강한 목회, 행복한 교회’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강의는 지역 목회자들의 영적 갈증을 풀어주기에 충분한 내용이었다. 이어지는 점심 시간에는 오륜교회 및 다니엘기도회, 꿈이있는미래 사역 박람회가 진행됐다.

그날까지선교연합은 통일비전스쿨의 첫 시간을 이날 통곡기도회로 진행했다. 오는 30일 금요기도회에는 통일한국을 꿈꾸는 사람들의 모임인 마중물 대표 이루열 목사(예수마음교회 담임)를 초청했다.

그날까지선교연합은 한국에서는 지난 5월 21일 서울 원천교회(담임목사 문강원)을 시작으로 9월까지 전국에서 2017년도 제2기 통곡기도회를 진행한다.

한편 그날까지선교연합의 뿌리인 ‘북한의 자유를 위한 미주한인교회연합(KCC)’는 다음 달 11~13일까지 워싱턴에서 한인 2세 학생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북한 인권 행사를 연다.

이 날의 영적인 회복을 위한 21일간의 기도회로 2016년 약 3,200여 교회가 함께 참여한 다니엘기도회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대안적 교육을 표방하는 꿈이있는미래가 함께하는 컨퍼런스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영적인 회복과 목회철학 공유, 실제적 사역 방법론을 제시하는 컨퍼런스이다.

최근 3월부터 시작된 컨퍼런스는 전주

를 시작으로 하여 창원, 제주, 광주, 대전, 부산, 순천, 원주, 대구 등 전국 각지의 지역교회들과 함께하는 컨퍼런스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총 2,300여 교회 3,3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다.

현재 다니엘기도회는 현재 5,800 교회가 신청을 마쳤으며, 꿈이있는미래는 1,700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발걸음을 동참하고 있다.

주최 측은 컨퍼런스 전국투어에 대해 “목회 철학 공유의 시간뿐만 아니라 지역 교회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함께하는 연합의 장이 되었다는 것이 가장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연합을 통한 기쁨과 목회의 동력을 잊어버린 목회자들의 영적 회복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서울·경기 컨퍼런스에 이어 진행되는 6월 29일 11차 인천지역 컨퍼런스 수도권 지역 목회자들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최 측은 “수도권 도시 목회의 현장에서 어떻게 사역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함께 나누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수도권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고민하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 전했다. 문의: 02-6413-4922-4

홍은혜 기자

한장총, 엑소더스 한반도 포럼 개최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채영남 목사, 이하 한장총)이 지난 6월 22일 비전70위원회 주관으로 엑소더스 한반도 포럼을 개최했다.

대표회장 채영남 목사는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현재의 한반도에서 통일, 건강한 대한민국으로의 엑소더스에 많은 교훈을 준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이것은 세속적인 방법으로 엑소더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며,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는 것을 의지하여야 함”을 강조했다.

오치용 목사(한장총 제70사업단장)는 ‘엑소더스 한반도와 통일광장 사랑마을’이라는 제70제에서 출애굽의 힘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출8:19)’인데 이것이 ‘디지털 데이(Digitus Dei)’로 디지털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손인 성경을 문화 곳곳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회와 사회의 엑소더스의 방향임을 제시했다.

김형석 박사(통일선교연합회 사무총장)는 제2발제에서 도산 안창호의 이상촌(理想村) 운동, 윤치호, 이승훈의 이상향(理想鄉) 운동의 역사적 사례를 소개하며 한



국교회의 엑소더스 사랑마을 건설에 대한 제안을 했다.

권혁만 PD(KBS 한국방송공사)는 ‘엑소더스 한반도와 바이블 루트 다큐영화 기획안’에 대해 발표했다. 1907년 평양대 부흥운동은 성경이 전래 따른 것이며 그 길을 다큐멘터리로 기획한 것이다. 그는 1866 미국상선 제너럴셔먼호 사건,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와 최자량의 만남, 존 로스와 사상륜의 만남, 일본의 쓰

다센 박사와 이수정의 만남 등이 성경 전래의 길을 조명해 앞으로의 우리의 나갈 엑소더스의 길을 제시했다.

김수읍 목사(한장총 부회장)은 ‘엑소더스 한반도와 한국교회 부흥운동과 기도’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대한민국이 기도운동으로 교회의 부흥과 사회의 성장 발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방 전, 6.25 전 후의 부흥운동과 기도, 1973년 빌리그레이 부흥운동, 한국의 새벽기도 부흥운동

을 소개하며 현재 한장총에서 전개하는 한국교회 5현기지도 운동에 대해 발표했다.

한편 발표 후 황덕영 목사(새중앙교회)의 진행으로 진행된 질의 응답 시간에는 통일,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등에 이번 포럼에서 다른 한반도 엑소더스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깊은 토의가 이뤄졌다.

박용국 기자



참석자들도 함께 찬양과 울동을 따라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오륜교회 제공

우체국 예금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의 꿈을 함께 하겠습니다.

똑똑한 금융 우체국으로 시작하자!

더 스마트해진
우체국 예금



우정사업본부
KOREA POST

[북한정의연대 성명] 웜비어의 사망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대북정책은 북한인권 우선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북한에 억류됐다 17개월 만에 석방된 뒤 사망한 오토 프레더릭 웜비어(Otto Frederick Warmbier, 22세) 장례식이 22일 미국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 와이오밍 고등학교에서 친인척 등 2500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웜비어는 지난 13일 훈수상태로 고향인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로 돌아와 병원에 입원한 지 엿새 만에 결국 숨졌다. 베지니아 주립대 3학년 재학 중이던 웜비어는 지난해 1월 북한에 관광을 갔다가 한 호텔에서 정치 선전물을 훔친 혐의로 체포되거나 이어 3월에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받고 강제 억류 되었다. 웜비어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북한은 웜비어가 재판을 받은 뒤 식중독 증세를 보였고, 수면제를 복용한 후 코마(惛수)상태에 빠졌다는 설명을 내놓았으나 설득력이 없다.

심각한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

로 돌아온 지 엿새 만에 숨진 웜비어를 망연자실하게 보내는 미국 국민들은 북한 당국이 과연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북한 외무성은 웜비어의 건강상태가 악화된 사실 확인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노르웨이 회의에 참석한 북한 외무성 국장이 역류증인 미국인 4명의 석방을 요구를 받고 나서 알아본 끝에 웜비어의 건강이 악화된 사실을 나중에 확인했다.